

「좁은문」과 성경의 간텍스트성 연구

L'intertextualité biblique dans
La Porte étroite

동성식

- I. 머리말
- II. 본 문
 - 1. 좁은문
 - 2. 에덴동산
 - 3. 십자가
- III. 맺음말
- 참고문헌

Résumé

Pour Gide, athée et religieux à la fois, la question dans la foi chrétienne est sans cesse la source du conflit dans sa vie et l'inspiration importante dans ses oeuvres. La Porte étroite marque le sommet de son oeuvre chronologiquement. De son propre aveu, Gide a médité ce récit dès 1891, dix-huit ans avant de le publier. On dit que Gide n'a pas écrit d'oeuvre plus parfaite que La Porte étroite ; son style, son art y atteignent à la simplicité sublime des grands oeuvres. Mais La Porte étroite est sans doute le récit antichrétien malgré sa perfectionnement formel comme l'oeuvre d'art.

En général, tout texte se relie à d'autres qui l'ont précédé ; l'un se définit par opposition aux autres. Cet essai a pour but de mettre au jour les aspects variés de la dialogue entre La Porte étroite et la Bible. On découvrira les significations bibliques qui se cachent, mais se modifient négativement par notre lecture de La Porte étroite. Pour accomplir ce projet efficacement, on peut se servir de concept d'intertextualité bakhtienne qui a été élaborée par J. Kristeva et T. Todorov.

Dans La Porte étroite, quelles sont les fonctions des citations bibliques? Comment se transforment les thèmes originels et les images bibliques? D'après l'analyse de l'intertextualité biblique, on peut distinguer trois chapitres ; la porte étroite, le jardin d'Éden et la croix.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Par exemple, dans la porte étroite qui sert de titre, d'épigraphe et de sujet du sermon, on peut trouver les images superposées de la porte étroite biblique, de la chambre d'Alissa, de la jardin et de l'âme d'Alissa. Mais elles renferment les significations différentes. Comme la jardin de Fongueusemare est la parodie du jardin d'Éden, Alissa est, nous semble-t-il, celle d'Ève, de Dieu et de Jésus Christ crucifié. Et la petite croix d'améthyste que Alissa portait au cou, c'est le symbole à la fois de l'amour humain et de l'abnégation. En dépit de l'analogie minutieuse de la Bible, on peut voir que la signification biblique, affaiblie ou travestie, intègre esthétiquement dans La Porte étroite.

I. 머리말

현대 불문학의 영역에 있어서 앙드레 지드만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작가는 드물 것이다. 그의 개인적인 또는 문학적인 위상과 사상적인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양극단을 달린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그의 작품의 거대한 다양성이 전혀 상반된 해석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지드 자신은 오직 예술가로 남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현대 사상의 가장 자유롭고 인본주의적인 흐름을 대표하는, 거의 “메시아적 해방자”로 추앙받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무정부주의를 살포하는 “악마의 화신”으로 매도되기도 하는 것이다.¹⁾

이러한 지드의 명실상부한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좁은문」도 그 평가에 있어서 상찬과 폄하의 양극단을 달린다. 가령, 티보데는 “프랑스어로 된 가장 아름다운 내적인 삶에 관한 소설 중의 하나”²⁾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1) Savage, *André Gide, L'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Nizet, 1962), p. 7.

2) Trahard, *La Porte étroite d'André Gide*(Edition de la Pensée moderne, 1968), p. 160.

뒤몽-윌덴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전율”과 “마법”이 가득한 책으로서, “결작의 숭고한 단순성에 문체와 기법이 도달한 지드의 가장 완벽한 작품”³⁾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드의 친구이자 시인이며 소설가인 프랑시스 잠도 “이 이야기보다 더 피와 눈물이 가득한 것은 없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작가 중의 하나인 지드의 결작을 존경심없이 접근할 수 없다. 그렇게 회생된 알리씨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게 빛난다. 그것은 베아트리체가 신화적인 녹색의 옷을 입고서 빛을 발하는 바로 그 아름다움이다”⁴⁾라고 격찬한다.

그러나 그와 거의 동시에 이 작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발로는 “병적이고 건강치 못한” 작품으로, 특히 알리씨의 “미덕의 교묘함”을 비난하고 나섰으며,⁵⁾ 심지어 마쉴스는 지드를 “악마같은 사람”이라는 극언을 하는가 하면,⁶⁾ 베플렘 신부는 지드가 지적이고 간결한 문장의 매력으로 진리를 공격하고 도덕적 확실성과 대원리를 파괴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하면서 「좁은문」을 금서목록에 넣자고 제안한다.⁷⁾ 클로델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으나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지드에게 편지하면서, 예술작품으로서 그 형태와 문체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고상한 알리씨의 절망적인 죽음을 통해 결국 하나님을 단순히 “잔인하고 침묵하는 고문자”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함으로써⁸⁾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의 불일치에 대해 지드 자신은 의외로 담담한 태도로 반가워한다. 평론가들의 획일적인 반응이나 대중의 갈채를 경멸했을 뿐만 아니라, 의견의 분분함을 유발시키는 것 자체가 작가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생의 정점에 있으며, 18년의 오랜 명상과 각고의 배

3) Ibid., p. 167.

4) Ibid., p. 98.

5) Ibid., p. 99.

6) Ibid., p. 188.

7) Ibid., p. 189.

8) Ibid., pp. 128~130.

대기(9)을 가진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해, 1910년에 “나는 오늘 죽을지 모른다. 나의 모든 작품은 「좁은문」 뒤에서 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은 오직 「좁은문」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¹⁰⁾라고 고백할 정도로 깊은 애정과 자신감을 보이면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고 있음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이상의 논의를 거칠게 요약해 보면, 「좁은문」은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예술적인 완성도가 높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좁은문」은 기독교적 신비주의의 위험을 비판하는 “경고의 책”이라는 것이 지드의 주장이다.¹¹⁾ 사실상 그에게 있어서 청소년기의 독실한 기독교 신앙과 그 체험은 그의 사상의 출발점이자 초기의 창조적인 에너지의 원천이기도 했지만,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양상 중의 하나인 심각한 종교적 갈등의 원천이기도 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종교에의 입문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성경 그 자체’였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¹²⁾ 무릇 하나의 예술작품은 순수한 창조라기보다 작가가 이미 읽은 텍스트들간의 교차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간(間)텍스트성¹³⁾ 이론을 수용한다면,

9) 1869년에 태어나 1951년에 82세로 사망한 지드의 생애 가운데 「좁은문」은 그의 나이 40세 때인 1909년에 출간됨으로써 연대기적으로 그의 생애와 경력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891년부터 구상하여 1908년에 마침내 탈고하면서 그는 “내가 얼마나 늙어 보이는가”라고 탄식할 정도로 그의 전 작품들 중에서 고통스런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노작이다. 「탕자 돌아오다」(1907)가 겨우 15일만에 완성된 것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10) Trahard, op. cit., p. 116.

11) Ibid., p. 104.

12) Perry, *The religious symbolism of André Gide*(Mouton, 1969), p. 23.

13) l'intertextualité의 우리말 역어로 ‘텍스트 상호관계성’, ‘상호텍스트성’이라 번역하기도 한다. 이 이론은 두 언표간의 모든 관계를 연구하는 바흐친의 대화이론을 모체로 하여 크리스테바와 토도로프가 텍스트들간의 대화, 그 기능적이고 형태적인 요소들 사이에 내재하는 가능한 모든 관계를 파악하여 텍스트의 본질을 규명하려는 것으로서, 랑송의 텍스트 설명의 기본 조건 중의 하나인 원천의 전통적인 ‘영향’이론을 방법론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서로 다른 텍스트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가장 명백한 형태가 다른 텍스트의 인용이며, 은밀한 형태는 암시, 모방, 표절, 패러디 등인데, 특히 후자의 경우는 독자의 정밀한 탐색이 요구된다. Cf. Greimas et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Hachette,

「좁은문」 속에서 양적인¹⁴⁾ 또는 질적인 차원에서 가장 주목을 요하는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다. 「좁은문」의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거나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성경 텍스트와의 상호관계를 깊이 천착하지 않으면, 이 소설의 예술적인 탁월성의 이유와 총체적이고 본질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좁은문」 속에서 성경구절의 인용이 어떤 기능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성경의 중요 주제와 이미지가 이 소설에서 어떤 양상으로 수용 또는 변형되어 있는가의 문제가 우리의 주된 검토 대상이다. 본문의 각 장은 「좁은문」과 성경의 교차에 의해 드러난 성경적 테마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압축하여 그 소재목으로 붙인 것이다.

II. 본문

1. 좁은문

우선 우리는 지드가 그토록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쓴 이 소설의 제목을 최종적으로¹⁵⁾ 「좁은문」으로 결정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1979), p. 194.

14) 「좁은문」 속에는 물론 성경구절 뿐만 아니라, 라신느, 코르네이유, 라 브뤼예르, 쉐리프뤼돔, 보들레르, 파스칼, 셰익스피어, 괴테, 스윈번 등의 작품의 한 부분들이 각각 한두 번 정도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성경구절의 인용은 무려 20여 회 이상이나 등장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인용 작품들 중에서, 간텍스트성의 관점에서 보들레르의 시와 「좁은문」의 관계를 밝히는 다음의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 Cf. Sonnenfeld, "Baudelaire et Gide: La porte étroite", *La Table Ronde*, 232(Mai 1967), pp. 79-90.

15) 이 소설은 애초에, 1887년 지드 어머니의 가정교사이자 둘도 없는 친구인 Anna Shackleton의 죽음에(그녀는 소설 속의 알리씨처럼 살풍경한 병원에서 외롭게 숨을 거둔다. 그러나 안나 새클턴의 모습은 소설 속의 미스 플로라 아슈워프톤으로 구현되어 있으며, 지드의 부인인 마들렌느가 알리씨의 모델이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깊은 충격을 받은 지드는 그가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존경한 이 경건한 크리스찬 독신 여성의 죽음에 대한 이야

한 작품의 제목이란 그 작품의 내용 전체를 압축한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드가 제목을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직접 인용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것으로 보인다. 지드가 말하는 ‘좁은문’은 성경의 ‘좁은문’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일까? 만일 성경의 원의미가 소설 속에서 변형되었다면, 어떻게 변형되었고 왜 변형되었을까?

그런데 이 소설의 모든 내적 드라마가 바로 이 ‘좁은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리의 추정은 단순히 소설의 표제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부인인 마들렌느에게 이 책을 바친다는 헌사와 소설의 본격적인 전개 사이에 우리는 다음의 에피그라프를 목격할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3장 24절¹⁶⁾

이 상징적인 에피그라프와 더불어 또 하나의 ‘좁은문’에 대한 성경 인용이 곧 나타난다. 소설의 1장에서 알리싸와 제롬의 삶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한다. 알리싸의 어머니이자 제롬의 외숙모이며 보피에 목사의 수양딸인 뤼실르 뷔폴랭이 가정과 남편, 세 아이를 버리고 그녀가 간통해 오던 젊은 장교를 따라 도망쳐 버린다. 이 불행한 사건 직후에, 알리싸와 제롬은 함께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여 ‘좁은문’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다.

그 날 아침 작은 교회당에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다. 보피에 목사는 아마도 의식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를 「행복한 죽음에 대한 시론」(*L'Essai de bien mourir*)이라는 제목으로 1891년부터 착수했다. 3년 후에는 「클레르양의 죽음」(*La Mort de Mademoiselle Claire*)이란 제목으로, 그 후 다시 「좁은 길」(*La Route étroite*)로 개칭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좁은문」(*La Porte étroite*)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다(Cf. Trahard, op. cit., pp. 25-26.).

16) André Gide, *La Porte étroite*(Mercure de France, 1991), p. 11.(Collection Folio), Cf. 본 논문에서 인용한 성경의 본문에 대한 번역은 「한글판 개역 관주 성경전서」(대한성서공회)를 따른 것이다.

목상의 주제로 삼은 것 같았다.

알리씨는 나보다 조금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만을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주의깊게 듣고 있던 그 말씀도 그녀를 통해 듣는 듯 싶었다. 삼촌은 어머니 곁에 앉아 울고 있었다.

목사는 먼저 전체 구절을 내리 읽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¹⁷⁾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¹⁸⁾

앞에 언급한 에피그라프가 눅 13:24의 인용인데 비해서, 보피에 목사의 설교 본문은 마 7:13~14에서 인용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4복음서 중에서 ‘좁은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수록된 곳은 이 두 복음서뿐인데, 지드는 각각 한번씩 인용한 셈이다. 왜 서로 다른 복음서에서 인용했을까에 대한 의문은 성경과의 간텍스트성에서 찾아보아야 그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에피그라프의 인용문을 분석하기 위해, 누가복음의 문맥으로 되돌아가 보면, 우리는 마태복음의 문맥과는 사뭇 다른 다음의 말씀을 듣게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중략) 오직 너희는 밖에 쫓

17) 이 부분의 성경 본문은 마 7:13~14의 인용인데, 우리말 성경과 붙여 성경에는 공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Efforcez-vous d'entrer par la porte étroite.)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Entrez par la porte étroite.)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드는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지드의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소설 내용과 결부시켜 의식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그랬는지 분명치 않으나, 필자의 생각으로 는 후자일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본다.

18) Gide, op. cit., p. 29.

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¹⁹⁾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좁은문’은 마태복음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큰 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협착한 길, 멸망과 생명, 다수와 소수 등의 서로 대립되는 개념의 극명한 비교를 통해 불신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 의사보다, 구원이 오직 -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²⁰⁾ - 한 번 그 문을 닫게 되면 절대로 다시 열지 않는 집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더 강조하는 문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래의 의미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변용되어 있으며, 제롬과 알리싸에게 ‘좁은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피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제롬은 외숙모가 도망치기 며칠 전에 그가 목격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곧 바로 연상한다. 르아브르의 외삼촌집에서 외숙모가 “중위 복장을 한 낯선 청년”을 “화려한 불빛을 뿌리고 있는” 그녀의 방으로 끌여들여 알리싸의 두 동생들 앞에서 “긴 의자에 누워서” “깔깔 대고 웃으며” 노골적으로 그 남자와 희롱하는 장면²¹⁾을 우연히 목격한 제롬은 바로 윗 층의 알리싸 방으로 올라가서, “어둠” 속에 홀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알리싸를 본 순간, 자신의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을 비장하게 설정한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그녀 곁에 서 있었다. 나는 내 마음 속에 솟아 오르는 이 새로운 걱정을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단지 그녀의 머리를 내 가슴에 꼭 껴안고 내 영혼이 흘러넘치는 입술을 그녀의 이마에 대고

19) 눅 13:24-28.

20) Cf. “무릇 기식(氣飮)이 있는 육체가 들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압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창 7:15-16).

21) Gide, op. cit., pp. 26-27.

있을 따름이었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감격, 회생감, 정성이 뒤얹힌 견잡을 수 없는 감정에 도취되어 나는 내 힘껏 하나님을 불렀고 이제는 내 삶의 목표가 공포와 악과 삶으로부터 이 소녀를 보호하는 것뿐이라 다짐하면서 스스로 내 몸을 바치기로 했다. 기도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찬 채 나는 마침내 무릎을 꿇었다.²²⁾

그리하여 '좁은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롬의 상상세계 속에서 넓은 문은 그 장교와 함께 웃으며 누워있는 외숙모의 방문으로, 좁은 문은 고독 속에서 눈물 흘리며 무릎꿇고 있는 알리씨의 방문으로 변하며, 그가 선택한, 성경 텍스트와 전혀 다른 의미로 변형시킨 '좁은문', 즉 알리씨의 방문에 들어가기 위해 어떤 고통도 달게 감수하는 것이 "들어가기로 힘쓰는"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기묘한 혼합의 결과, 알리씨는 제롬의 생의 꽃대가 되고 그의 모든 종교적 노력의 목적이 된다. 그녀에게 가치있는 존재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자신을 '시련'에 던져 넣기로 한다. 그 첫 시련의 실천으로 예배 후 알리씨를 찾아가 위로하는 대신, 역으로 아무말 없이 뛰어나와 버린다.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옴으로써 더욱 그녀에게 적합한 인물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²³⁾ 최초의 이 상징적인 사건은 소설이 진행되면서 더욱 구체화되어 그녀를 사랑할 수록 그녀 곁을 떠나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게 되어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소설적 크라이막스이자 결정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8장에서, 두 주인공들의 마지막 만남과 이별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비로소 지드가 왜 누가복음서에서 에피그라프를 인용했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앞서 살펴본 에피그라프의 인용문 뒤에 숨어 있었던 부분인 눅 13:25~28의 내용이 놀랍게도 소설적인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조금 전에 그녀가 나왔던 채소밭의 작은 문 앞에 이르렀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안녕!" 하고 말했다. "아니야, 더 오지마. 안녕, 사랑하는 나

22) Ibid., pp. 27~28.

23) Ibid., p. 31.

의 벗.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야 ... 더 좋은 것이.”

그녀는 팔을 뻗쳐 내 어깨 위에 두 손을 얹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가득 찬 눈으로 볼드는 듯 혹은 가라는 듯 한동안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

문이 닫히고 그 위로 빗장 지르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참을 수 없이 복받치는 절망에 사로잡혀 그 문에 기댄 채 쓰러졌다. 그리고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울고 흐느꼈다.²⁴⁾

누가복음에서 “집주인”의 뜻에 따라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좁은문” 밖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우는” 것처럼, 이 소설에서는 알리씨의 영원한 이별의 말과 그 말과 모순되는 듯한 행동 후, 그녀의 결연한 의지에 따라 “문이 닫히고 그 위로 빗장을 지르자” 제롬은 “작은 문” 밖에 “쓰러져”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울고 흐느끼는” 것이다. 이와같이 성경과 소설의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우리는 소설 전체를 통해 가장 극적인 이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3:25~28의 패러디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주인 = 알리씨’라는 등식관계를 통해 제롬에 있어서 그녀의 존재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 제롬은 하나님에 의 신앙과 알리씨에의 사랑을 동일시하거나 혼동하고 있다. 알리씨는 자신이 그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매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처음부터 그녀에게 “스스로 내 몸을 바치기로”²⁵⁾ 결심한 제롬에게 있어서 그녀는 단테의 베아트리체와 같은 존재로 이상화되고,²⁶⁾ “복음서에 나오는 그 값진 진주”²⁷⁾와 같은 존재로 우상화된다. 1장에서는 알리씨의 방문으로, 8장에서는 정원의 작은 문으로 상징된 제롬의 ‘좁은문’은 바로 알리씨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며, 그의 우상인 ‘집주인 = 알리씨’가 그 문을 닫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고 “절망의 캄캄한 어둠”으로 추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알리씨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가득찬 눈으로” 제롬을 사랑

24) Ibid., p. 152.

25) 주 23)참조.

26) Gide, op. cit., p. 24.

27) Ibid., p. 33(Cf. 마 13:45~46 참조).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거부했을까? 그녀에게 있어서 ‘좁은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에게 바쳐진’이라는 의미의 이름인 알리씨²⁸⁾는 과연 그 이름이 시사하듯,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절대적인 헌신 때문에 제롬과의 사랑을 포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숨은 이유로 자학에 가까운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한 것일까? 그 전모는 알리씨의 유서처럼 남은 그녀의 일기를 통해 비로소 드러난다.

그녀가 제롬과의 결합을 거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두 살 위라는 나이 문제, 동생 쥘리에뜨보다 먼저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 혼자 남은 아버지를 돌보아 드려야 한다는 것 등이었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방어적인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모든 선행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거나 해소된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그것은 성스러운 절대와 미덕에의 욕망과 제롬과의 사랑의 기쁨에의 욕망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보다 내면적인 이유 때문인데, 이 두 욕망이 조화되지 못하고 대립하게 된 것은 그녀가 현실에서의 사랑의 한 속성인 육체적인 성적 욕망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일기에 적힌 다음의 에피소드는 그 갈등의 심층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어제 저녁 제롬이 자기 방으로 올라간 후에 나와 함께 눕도록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잠시 방을 나가셨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거의 -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그랬는지 - 누워 있었다. (중략) 아버지가 들어 오시더니 문 앞에 서신 채로 미소하시는 듯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것이었다. 어쩐지 당황해져서 나는 몸을 일으켰다. (중략) “아버지.” 하고 나는 마침내 말했다. “왜 오늘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필 오늘 저녁에 ...”

“그건 방금 응접실에 들어서면서 소파 위에 누워 있는 너를 보았을 때, 잠깐 동안이지만 네 어미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고집해서 물어 본 이유는 그 날 저녁 ... 제롬이 내가 앉은 안

28) Laughead, *Dictionary of Given Names*(Glendale, A. H. Clark, Co., 1958), p. 154(Perry, op. cit., p. 88에서 재인용).

락의자에 기대어 서서 내게 몸을 굽혀 나의 어깨 너머로 내가 읽던 책을 함께 읽었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의 체온과 떨림도 느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책을 읽는 척 하고 있었지만 이미 아무 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있었다. 책 줄조차 가려볼 수 없을 지경이었다. 너무도 이상한 심적 동요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아직 그럴 기력이 있을 때 서둘러 일어섰다. 다행히도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잠시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다 ... 하지만 잠시 후, 응접실에서 홀로, 그 소파에 누워 있었을 때, 나는 정말 어머니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나 자신 비참하게 여겨졌을 뿐 아니라 회한처럼 마음 속에 솟아오르는 지난 날의 추억에 쫓겨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주여, 악의 모습을 띤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²⁹⁾

우리는 이장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알리씨의 어머니가 늘 취하던 ‘길게 누워있는’ 자세를 알리씨 자신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화려하고 육감적이며 불륜의 사랑으로 정열을 버린 어머니에의 의식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어쩔수 없이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함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순간적이거나 알리씨를 그녀의 어머니로 착각함으로써 동일시를 보강하고 있으며, 제롬 곁에서 느낀 육체적인 강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어머니의 혐오스러운 속성을 본능적으로 이어 받았기에 어머니와 같은 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다. 바로 어머니의 불륜의 정욕 때문에 알리씨는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망을 악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엄격한 청교도의 화신으로 그려진 제롬의 어머니를 의식적으로 지향하여³⁰⁾ 영적인 완성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갈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녀의 절대적인 신앙심은 기실 신비주의적인 현실 도피와 편

29) Gide, op. cit., pp. 164~165.

30) Cf. 미스 아슈워르프톤은 나를 돌아보고 속삭이듯이 말했다. “네 어머니 모습을 지닌 것은 알리씨다.”(Ibid., p. 47.)

집광적인 두려움의 은폐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알리씨에게 있어서 ‘좁은 문’은 성스러움으로 위장한 자기완성이며, 거기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본성을 억제하며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고 믿는다. 덕행이나 고행, 자기 포기가 ‘구원’의 선행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알리씨의 고백은 그녀의 신앙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적절한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아니야, 제를, 아니야. 우리가 덕을 행하는 것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의 사람이 찾고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야. 고귀하게 태어난 영혼에게는 스스로의 고행에 대한 보상을 생각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말이야. 그에게 있어서 덕은 더 이상 하나의 장식이 아니야. 그것은 이러한 영혼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형상이야.³¹⁾

이 예문을 성경과의 간텍스트성의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그녀는 성경의 메시지³²⁾와는 달리 영생의 보상을 불신하고 소망하지 않는다. 기독교와는 다른, 그녀가 보기에 더 고상한 이상적인 “무상성”의 모랄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귀하게 태어난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³³⁾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의 종교는 기독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며, 차라리 영웅주의와 극기, 이기적인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스토아주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인용하고 해석한 결과, 그녀 스스로가 임의로 만든 ‘좁은문’의 턱없이 높은 문턱에 걸려 자신도 넘어지고 타인도 넘어지게 만든 것이다.

31) Ibid., p. 164.

32) Cf.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빌 3:14). 그밖의 구절로서, 히 11:26, 딤후 4:8, 벧전 5:4, 계 2:10 참조.

33) Cf.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 51:5),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2 에덴동산

「좁은문」속에서 전체적인 플롯의 흐름이나 대부분의 장면은 두 주인공 간의 갈등과 팽팽한 긴장의 연속이라 볼 수 있다. 마치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영적인 풍경화 속에서, बे기몽이 ‘오아시스’라는 적절한 표현으로 지적한 것처럼³⁴⁾ 우리는 긴장의 해소와 이완, 그리고 부드러움과 조화의 짧은 세 번의 순간을 목격할 수 있다. 얼핏 보면, 그것은 두 인물간의 고통스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삽입한 단순히 기술적인 수단이나 별 의미없는 삽화로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원적인 불일치로 이루어진 이야기의 내적인 흐름 속에서 지극히 짧은 순간이나마 행복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의 장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세 장면의 공통 분모는 바로 그것의 무대가 된 폰케즈마르의 정원이다. 여기서 우리는 배경에 대한 묘사가 극히 드문 지드의 다른 소설에 비해, 이례적으로 「좁은문」에서는 1장의 서두에서 폰케즈마르의 정원에 대한 묘사가 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세밀하게 되어 있음을 상기하게 된다.³⁵⁾ 마치 성경의 파란만장한 드라마가 에덴동산이라는 배경의 창조로부터 시작하고, 그 공간이 성경 이야기의 시발점이며 이 지상에 존재했던 유일한 낙원인 특권적인 땅이었듯이, 「좁은문」은 드라마가 시작될 배경의 창조로부터 시작하며 그곳은 소설의 시발점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찌면 마쑤이 언급했듯이,³⁶⁾ 이 장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의 본질이 집중되어 있는 특권적인 땅이며, 소설의 정점인지도 모른다. 두 인물간의 점차 고조되는 갈등의 긴 이별 속에서 짧은 행복한 만남이 이루어진 유일한 공간인 이 정원이 바로 창세기의 에덴동산의 암묵적인 소설적 변형임을 밝히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알라씨와 결혼을 바라던 제롬의 어머니가 죽은 후, 제롬은 약혼 문제를

34) Wégimont, “Trois oasis dans La Porte étroite de Gide”, *Bulletin des Amis d'André Gide*, 67(Juillet 1985), p. 13.

35) Gide, op. cit., pp. 14-16.

36) Masson, “La porte ouverte ou voyages et voyageurs dans La Porte étroite”, *Bulletin des Amis d'André Gide*, VII, 45(Janvier 1980), p. 12.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지만, 알리씨의 완곡한 거절에 부딪히자 당혹감에 빠진다. 그녀의 약혼에 대한 영문을 알 수 없는 반대 입장을 담은 편지를 받고 불안과 슬픔에 찬 그에게 아벨은 둘이 같이 예고없이 폰케즈마르를 방문하여 그녀의 진의를 파악하자고 제의한다. 불시에 쳐들어온 그들을 쫓아내는 반색하지만, 알리씨는 못마땅한 듯 신중한 태도로 대한다. 한참 후에 그는 알리씨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원에 있는 그녀를 찾아 헤매다 만나는 장면이 그 첫 번째 만남이다.

그녀는 과수원 안쪽 담 밑에서 너도밤나무 숲의 가랑잎 냄새에 그 향기가 뒤섞여 나는 첫 국화를 꺾고 있었다. 대기에는 가을이 담뱃배에 있었다. 울타리에 내리 쏘이는 햇살도 겨우 온기를 던져줄 뿐 하늘은 동녘 나라인 양 맑았다. (중략) 나는 벌써 그녀가 할 책망과 그녀의 눈길에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할 준엄성에 대비해 마음을 긴장시키고 용기를 냈다. 그러자 아주 가까이 이르러 조심스럽게 걸음을 늦추자 그녀는 처음에 얼굴을 돌리지 않았지만 마치 성난 어린애처럼 얼굴을 숙인 채 꽃을 담뱃배에 쥐어든 손을 나를 향해 등 뒤로 내밀면서 오라고 청하는 시늉을 했다. 이러한 몸짓에 오히려 이번에는 내가 멈추어 서자, 비로소 그녀는 몸을 돌려 내게로 몇 걸음 걸어오더니 얼굴을 드는 것이었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차 있었다. 그녀의 눈길에 비추어지자 모든 것이 갑자기 다시금 단순하고 쉽게만 생각되어 나는 변함없는 목소리로 힘들지 않게 말문을 열었다. (중략) 사실 그녀 곁에 있기만 하면 나는 행복했다. 완벽하게 행복해서 다시는 그녀의 생각 외의 다른 생각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미 나는 그녀의 미소밖에는, 그리고 이렇게 그녀와 더불어 꽃이 만발한 포근한 오솔길을 그녀 손을 잡고 거니는 것 밖에는 아무 것도 바라고 있지 않았다.³⁷⁾

이 예문에서 정원에 대한 묘사 중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첫 문장은 “하늘은 동녘 나라인 양 맑았다”(le ciel était orientalement pur.)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맑은”(pur) “동녘 나라”(l’orient)라는 어휘가 환기하는 것은 무엇일

37) Gide, op. cit., pp. 63-65.

까? 만물이 원초적으로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는 동쪽의 어떤 신비한 이상향은 어디인가? “동녘 나라”는 이 질문을 푸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본다. 성경과의 간텍스트성 차원에서 보면, ‘지금 여기’와는 다른 ‘그때 그곳’은 바로 창세기의 에덴동산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³⁸⁾

이 구절에서 “동방”(l'orient)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한 “동녘 나라”와 동일한 단어로서 에덴의 지리적인 위치를 밝히는 데 근거가 되는 말이다. 성경사전에 의하면,³⁹⁾ 히브리어인 “에덴”은 ‘기쁨 또는 환희’를 의미하며, “동산”(le jardin)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낙원’(le Paradis)이라는 단어가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 견해를 취하면, 에덴동산은 기쁨의 동산 또는 환희의 낙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원(le jardin)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우 불안했던 제롬이 정원에 들어가면서 문자적인 의미에서 티없이 푸른 가을 하늘을 문학적으로 “동녘 나라의 순수함”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은 그에게 있어서 낙원의 세계로 회귀하는 기쁨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곧 순진무구한 “어린애처럼” 장난하며,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동심이 인간의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또 하나의 낙원이라면, 그들의 외면적인 낙원인 이 정원에서 그 내적인 낙원을 회복한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녀의 “미소의 눈길”에 의해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쉬워져서” 마침내 “완벽한 행복”에 도달하여 “꽃이 만발한 포근한 오솔길”을 함께 “손을 잡고 거니는” 그들의 모습은 에덴동산에서 기쁨과 환희로 완벽하게 행복했던 원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 행복의 시간은 저녁에 정원을 떠날 무렵에 마감된다. 알리씨는

38) 창 2:8

39) Gerard, *Dictionnaire de la Bible*(Robert Laffont, 1989), p. 296.

“반은 누님같은 태도”로 재톱에게 약혼을 “공상적인 것”으로 설득함으로 써⁴⁰⁾ 그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쥘리에뜨의 돌발적인 결혼을 전후로 두사람의 관계는 여러 번 혼미와 추락을 거듭한다. 1년 이상의 고통스런 긴 이별의 시간이 지난 후, 미스 이슈뷔르퐁의 죽음을 계기로 재톱을 약속하여 다시 낙원의 행복을 체험하는 두 번째 장면이 다음과 같이 펼쳐진다.

그녀는 정원의 안쪽에 있었다. 때 마침 철을 만나 활짝 핀 라일락, 마가목, 금잔화, 웨즐리아 등의 꽃당굴로 뻗뻗이 둘러싸인 그 등그런 갈림길로 나는 천천히 걸어갔다. 너무 멀리서부터 그녀를 보지 않도록, 아니 내가 오는 것을 그녀가 보지 못하도록 나는 정원 한 쪽의 나뭇가지 밑으로 공기 서늘한 그늘진 오솔길을 따라갔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하늘도 나의 기쁨처럼 산뜻하게 빛나고 아련하게 맑았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다른 쪽 길로 오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던 모양이다. 나는 그녀 가까이 등 뒤에까지 갔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 시간마저 나와 함께 멈춘 것 같았다. 이 순간이야말로 행복 그 자체보다 앞서 오고, 또 행복 그 자체도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

나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싶었다. (중략) 그녀는 두 팔을 내민 채 미소를 띠면서 고개를 가웃하고 말없이 다정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흰옷 차림이었다. 나는 지나칠 정도로 경건한 그녀의 얼굴에서 어린애같은 그 미소를 다시 보았다.⁴¹⁾

4월말 부활절 방학이라는 시기와 맞물려, 두 인물의 얼어 붙었던 마음은 만물이 소생하고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듯, 그들의 낙원에서 다시 생기를 되찾고 기쁨을 회복한다. 이 예문에서도 앞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낙원에서의 “빛나는 기쁨”과 티없이 “맑은” 순수함, 동심의 세계로의 회귀, “가장 아름다운” 완전한 행복을 다시 한 번 보여 줌으로써, 이 정원이 에텐동산의 소설적인 변형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40) Gide, op. cit., p. 66.

41) Ibid, pp. 124~125.

그러나 이 순간적인 갈등해소의 시간은 두 사람의 내밀한 충족감을 확신한 제롬의 결혼제의로 인해 다시 깨져 버리는데, 이 두 번째 거부에 의한 충격의 강도나 추락의 깊이는 앞의 경우보다 더 심함을 보게 된다. 성스러운 조건과 미덕의 함정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 제롬은 알리씨가 벌이는 잔인한 연극에 의해 환멸을 느끼자 존재의미를 상실하고 3년 동안이나 방황한다. 열 달 전에 팔레스티나 여행 중에 알리씨 아버지의 별세소식을 접한 제롬은 우연히 폰케즈마르를 예고없이 찾아가게 된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해후가 정원의 작은 문 앞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문은 닫혀 있었다. 그러나 안의 빗장이 퍽 약해서 나는 어깨로 밀어 부술까 하고 생각했다. ... 바로 이 때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다. 나는 담이 움푹 들어간 곳에 몸을 숨겼다.

정원에서 나오는 것이 누구인지 나는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것이 알리씨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몇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가냘픈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너지, 제롬? ...”

심하게 고동을 치던 내 심장이 딱 멈추었다. 그러고는 막혀버린 나의 목에서 단 한 마디 말도 나오지 못하는 동안 그녀는 좀더 힘을 주어 되풀이해 불렀다.

“제롬! 너지?”

그녀가 나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자 나는 너무도 벽찬 감동에 못이겨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전히 내가 대답을 못하자 알리씨는 몇 걸음 걸어 나와 담을 돌았다. 그러자 내 몸에 알리씨를 느꼈다. 나는 그녀를 당장에 보기가 두려운 듯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내게로 몸을 굽히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녀의 그 가냘픈 두 손에 마구 입술을 갇다뒀다.

“왜 숨었지?” 그녀는 헤어져 있던 3년 간이 불과 며칠 동안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답답한 얼굴로 말했다.⁴²⁾

우리가 보기에 이 장면은 앞의 두 장면들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에텐동

42) Ibid., pp. 146~147.

산의 패러디로서 주의 깊은 분석이 요망된다. 앞의 두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완벽한 조화가 구현된 원죄 이전의 에덴동산을 연상시키는데 반해, 이 장면은 원죄 이후의 에덴동산의 상황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간텍스트성의 차원에서 창세기의 그 사건의 기록을 인용해 보고 위의 본문과 교차시켜 검토해 보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와 뉘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43)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인 “날이 서늘할 때”⁴⁴⁾는 「좁은문」에서도 동일하게 “석양”이 깔리는 “저녁” 무렵으로 설정되어 있다. 앞의 두 만남이 “맑게 빛나는” 하늘이 있는 낮시간에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보면, 그와 대조적으로 어둠이 임박한 이 시간대에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음은 의미심장하다. 첫 장면에서 “동녘 나라인양”이라는 수식어가 낙원에 들어가서 누릴 기쁨을 예고했던 것처럼, 이 장면에서 석양의 저녁이라는 시간 설정은 그들의 관계가 파괴되고 낙원을 떠나 당하게 될 슬픔을 암시하고 있다. “날이 서늘한” 시간은 바로 인간 최초의 범죄 직후의 시간으로서 인간과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의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과 불안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날이 서늘한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소설 속에서 “사흘 전부터 저녁마다” 정원의 문 앞에까지 산책하는 알리싸에 대응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와 뉘를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제롬은 알리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담이 움푹 들린 곳에 몸을 숨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음성,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알리싸가 제롬을 부르는 음성, “제롬! 너지?”로 변형되어 있다. 그런

43) 창 3:8-10.

44) 「관주 성경전서」에서 ‘날이 서늘할 때에’라고 번역한 부분을 붙여 성경에서 찾아보면, ‘저녁 무렵에’(vers le soir)라고 되어 있다.

데 소설에서는 알리씨가 그를 두 번 부른다. 처음에는 약간은 자신없는 “가
날픈 목소리”로, 두번째는 “좀더 힘을 주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부르고 있
다. 이것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나님은 아마도 아담을 적어도 두
번 이상 불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고 아담이 숨는 것으로 보아 아담을 찾는 음성으로 추정된
다.), 그 다음은 보다 구체적인 말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간텍스트적인 빈
틈없는 대응관계는 범죄한 아담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알리씨에 대한 제
롬의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것은 숨는 것과 두려움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아담처럼, 제롬도 “그녀를 당장에 보기
가 두려운 듯이 두 팔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같은 정서적인 반응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담의 원죄에 대응하는 제롬의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렇게 그들의 “낙원” 입구에서 극적으
로 해후한 그들이 앞의 두 만남처럼 세번째도 갈등 해소의 짧은 행복의 시
간을 가지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서로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대화는 진부하고
잡다한 소식을 묻는 정도에 불과했으나, 제롬은 그녀가 그를 실망시켰듯이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은 원한과 사랑의 대립적인 양면 감정으로 착잡해져
서 의식적으로 쌀쌀하게 대한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한 조각 구름에 가리어 있던 석양이 우리 맞은편 지평선에 다
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텅빈 들판을 떨리는 낙조로 가득 채우고 우리 발밑에
펼쳐 있는 좁은 골짜기를 느닷없이 붉은 빛으로 뒤덮더니 이윽고 사라져 버
렸다. 나는 황홀해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빛나는 도취경이 다시 한 번 나
를 휘감고 나의 뼈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자 원망의 마음은 사라져 버리
고 마음속에서는 사랑의 속삭임만이 들려 오는 것이었다.⁴⁵⁾

라는 본문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그의 냉담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곧
그들의 낙원 근처의 대자연의 장엄한 풍경에 “황홀하게” 도취된 제롬은 원

45) Gide, op. cit., pp. 148-149.

망과 사랑의 분열과 갈등이 해소되고 다시 사랑을 되찾는다. 극히 짧은 순간에 회복한 이 “빛나는 도취경”의 행복은, 그러나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순식간에 사라지는 석양이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명도 또한 극히 짧다. 즉 제롬이 다시 낙원의 환희를 경험하자마자,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를 장차 너의 딸에게 주라고 하면서 알리씨는 완전한 결별을 예고한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는 그녀의 말에 제롬은 처음으로 그녀를 “미친 듯이 난폭하게 포옹”하며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안타깝게 호소한다.⁴⁶⁾ 그러나 그녀는 결국 앞 장에서 본 것처럼⁴⁷⁾ 정원의 작은 문 안으로 홀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제롬의 ‘원죄’는 바로 결혼의 욕망임을 추출할 수 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듯이,⁴⁸⁾ 제롬에게 있어서 금기사항은 결혼욕망과 그 표출인 것이다. 그 욕망이 강해지고 표출이 노골화될수록 그녀의 반사적인 거부도 점점 강해진다. 거부의 조짐이 아직 명확치 않았던 첫번째 만남에서 아담의 파트너로서 하와의 이미지가 더 강했던 알리씨는, 거부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둘째 만남을 거쳐, 결정적인 거부를 보여 주는 마지막 만남에 이르게 되면 아담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하와와 하나님이라는 1인 2역의 양면성 중에 후반으로 갈수록 후자가 전자를 압도해 버리는 것이다. “이상하게 반짝이는 그녀의 눈길은 얼굴을 초인간적이며 천사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⁴⁹⁾는 그녀에 대한 묘사와 “갑자기 그녀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녀를 두 팔로 감싸는”⁵⁰⁾ 제롬에 대한 묘사가 우리의 이같은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벌써 여러 번 예문으로 언급된 “무릎꿇기”⁵¹⁾는 그녀에 대한 그의 존경과 순종, 나아가 영원한 경배를 단적으

46) Ibid., pp. 150~151.

47) 주 25) 참조

48) 창 2:17.

49) Gide, op. cit., p. 150.

50) Ibid., p. 150.

51) 주 23), 42), 43) 참조. 그밖의 예로서 두 번째 만남의 이별 직전에 다음의 주목할 만

로 증거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어쩌면 제롬의 준엄한 어머니를 의식적으로 지향하며 그의 경배의 대상이자 우상인 알리싸에게 결혼은 일종의 정신적인 근친상간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⁵²⁾ 것이자 우상파괴인지도 모른다.

금기의 파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 원죄의 결과, 아담은 고통의 삶과 죽음을 선고받고 에덴동산에서 추방된다. 그들의 낙원인 정원에서 쫓겨난 제롬도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방황하며 자포자기의 여생을 산다. 제롬을 잃은 알리싸 역시 3일 후에 떠나고 한 달 후에 절망하며 죽는다. 그 후 에덴동산이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었듯이, 알리싸가 떠난 풍케즈마르의 정원은 로베르에게 넘겨졌다가 남에게 매각됨으로써 완전히 소설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다.⁵³⁾

3. 십자가

「좁은문」과 성경의 간텍스트적 대화의 차원에서 가장 은밀한 암시의 형태로 교직되어 있어서 자칫 간과하기 쉽지만 실은 중요한 이미지 중의 하나가 십자가라고 본다. 간과하기 쉽다고 한 이유는 소설 속에서 그것은 한낱 장신구의 형태인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소설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 지극히 미미한 소품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는 이 목걸이가 내포하는 상징성을 밝히고 그 심층적 의미를 포착하려는 것이 이

한 장면 “나는 그녀의 두 무릎에 이마를 파묻고 어린애처럼 울면서 말을 이었다.”(Ibid., p. 128.)를 들 수 있다.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무릎꿇기는 더 빈번해지고 그 정도도 심해진다. 52) 창 3:5.

53) 풍케즈마르의 정원의 모델은 잘 알려진 대로 지드 부인이 된 마들렌느의 소유지인 노르망디의 꼬(Caux) 지방에 있는 퀴베르빌(Cuerville)의 저택의 정원이다. 그곳은 실제로 어린 지드와 그의 사촌 누이들과 함께 유년기를 보낸 유서깊은 곳이며 지드의 영적 고향이다. 오늘날 거의 버려진 듯한 그 저택과 정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 종탑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마을의 소박한 묘지에 지드와 마들렌느, 그 사촌 누이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다 (Cf. Trahard, op. cit., pp. 47~49.).

장의 목적이다.

소설 속에서 이 목걸이는 모두 4번 등장하는데, 그 처음은 4장에 윌리에 뜨가 전격적으로 떼씨에르와의 결혼을 선포하고 곧 혼절해 버리는 사건이 있기 직전에 나타난다.

현관에 들어서자 나는 알리싸를 보았다.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던 듯 나를 보자 곧 내게로 왔다. 얇은 겹옷 깃 사이가 파여진 곳에는 목에서부터 오래된 자그마한 자수정 십자가를 늘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기념으로 내가 준 것인데, 그녀가 달고 있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긴장된 그녀의 얼굴과 괴로운 표정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⁵⁴⁾

이 예문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정황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리라고 본다. 그 하나는 삼각관계로서 제롬을 두 자매가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생도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눈치챈 알리싸는 동생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양보하려고 결심한다. “긴장된 그녀의 얼굴과 괴로운 표정”은 그 고통스런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롬이 “처음으로 본” 십자가 목걸이는 바로 동생을 위한 자기희생의 외적인 상징물인 것이다. 둘째 정황은 그 목걸이가 제롬 어머니의 유품이란 사실이다. 준엄한 프로테스탄트의 전형적인 일생을 보낸 제롬의 어머니, 곧 알리싸의 고모는 앞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알리싸의 부정한 어머니와 대척점에 있는 경건한 여인으로서 알리싸가 지향하는 삶의 모델이다. 바로 그 “어머니의 기념품”이 알리싸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은 제롬의 어머니의 정신적인 후계자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의 두 번째 출현은 7장의 두 주인공의 짧은 행복한 두 번째 만남의 장면과 맞물려 있다. 그것은 이별의 징표로서 제롬이 “좋아하는 그 자수정 십자가를 달고 있지 않은 저녁”,⁵⁵⁾ 그 다음날 새벽에 그가 말없이 떠나기로 약속한다.

54) Gide, op. cit., p. 79.

55) Ibid., p. 125.

나는 아직도 그녀와 키스해 본 적이 없었다. 저녁마다 나는 그녀 웃옷 위에서 조그마한 자수정 십자가가 자그만 금줄에 달려 반짝이는 것을 보았다. 내 가슴 속에는 또 다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희망이라고? 아니, 그것은 차라리 확신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알리씨도 느끼고 있으리라고 나는 짐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거의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를 의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차츰 우리의 대화는 대담해져 갔다.⁵⁶⁾

이때의 자수정 십자가 목걸이는 “희망”의 상징이다. 그것은 “알리씨도 느끼고 있을” 인간적이고 자연스런 사랑의 욕망을 상징한다. 여기서 독일의 장미십자회원들이 자수정이라는 보석을 신성한 회생의 상징이자, 사랑과 정열, 진리와 고통, 그리고 희망의 표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쿤츠의 지적은 매우 흥미롭다.⁵⁷⁾ “이제 질리에뜨도 행복하게 되었으니 우리도 …” 결혼하지는 제롬의 대담한 제의가 있자마자,⁵⁸⁾ 그날 저녁 그녀는 목걸이를 달지 않음으로써 제롬에의 욕망을 거세시키고자 한다. 그녀의 편지 속에 “온 몸과 마음의 그 아련한 충족감”⁵⁹⁾으로 표현된 알리씨의 육체적인 성적 욕망은 그 목걸이의 재료인 자수정에 투영되어 있는 셈이다. 그녀의 어머니의 불륜에 의한 심각한 피해의식으로 고정관념처럼 된 성적욕망의 혐오는 그녀를 그 반대쪽의 극단으로 치닫게 만든다. 그리하여 제롬의 영적 구원에 그녀 자신이 장애물이라고 결론짓고,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무관심과 냉담을 가장한 연극을 함으로써 자기회생의 길을 택한다.

이 목걸이의 세 번째 등장은 8장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에 있다. 여기에는 이 소설의 절정단계 지금까지 살펴본 좁은 문과 에덴동산, 그리고 십자가의 세 주제 또는 이미지들이 서로 겹쳐져 혼용을 이루고 있다. 그녀는 만나기 며칠 전부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를 만나게 해 달라.”⁶⁰⁾고 하나님께

56) Ibid., p. 127.

57) Kunz, *The Curious Lore of Precious Stones*(Lippincotte Co., 1913), p. 269(Perry, op. cit., p. 93 재인용.).

58) Gide, op. cit., p. 127.

59) Ibid., p. 129.

간청하며, 매일 저녁 재회의 예감을 가지고 정원에 나올 때마다 그 목걸이를 지니고 나오는 것이다. 그녀의 일기를 보자.

바로 여기에 그는 올 것이다. 나는 그의 손 안에 내 손을 놓으리라. 그리고 나의 이마를 그의 어깨 위에 얹으리라. 나는 그의 곁에서 호흡을 하게 될 것이다. (중략) 그리고 또 그가 좋아하던 그 자수정 십자가, 지나간 어느 여름, 그가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동안 저녁마다 내가 목에 걸었던 그 십자가도 몸에 지니고 나왔었다.⁶¹⁾

사랑과 희망의 상징으로서 그 목걸이를 매일 저녁마다 걸고 나옴으로써 제롬에의 욕망은 정점에 이른다. 이 예문에서 숨가쁘게 등장하는 ‘몸’에 대한 일련의 표현 - 손 안에 내 손을, 나의 이마를 그의 어깨 위에, 곁에서 호흡을, 목에 걸었던 - 은 몸에 지닌 십자가와 어우러져 그녀의 육체적 사랑에의 원초적인 갈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막상 그를 만나자 그녀는 그 목걸이를 그에게 돌려주려고 함으로써 제롬에의 욕망을 다시 거부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검은 베일을 쓴 상중(喪中)인 그녀에 대한 묘사⁶²⁾가 늘 상복을 입고 검은 리본이 달린 모자만 썼던 제롬의 어머니의 모습⁶³⁾과 정확히 일치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목걸이를 반환하여 자기희생의 길로 향하는 그녀에 대한 이 묘사와 더불어, 육적인 그녀의 어머니의 속성과 영적인 그의 어머니의 속성이 혼재했던 그녀의 양면성 중에 마침내 후자의 의지적인 면이 전자의 본능적인 면을 제압하는 듯이 보인다. 제롬이 떠난 후 그녀는 일기에, 갯세마네의 고뇌를 끝내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한 “이제는 일어나라 때가 왔느니라”라는 막 26:46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울 임의로 인용하면서⁶⁴⁾ 현실도피의 이정표로 삼고 있다. 그

60) Ibid., p. 172.

61) Ibid., p. 173.

62) Ibid., p. 148.

63) Ibid., p. 14.

64) Ibid., p. 175.

녀는 결국 목걸이를 자기 목에 건 채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것이 네 번째 마지막 등장이다.

알리씨가 내 이름을 적어 봉인한 봉투 속의 서류를 나는 곧 받게 되어 있었다. 나는 또 내가 받기를 거절했던 그 조그만 자수정 십자가를 알리씨가 자기 목에 달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그렇게 했다는 것도 나는 에두와르를 통해 알았다.⁶⁵⁾

제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파리의 쓸쓸한 한 요양원에서 고독하게 “그 조그만 십자가를 자기 목에 달고”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 이면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⁶⁶⁾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십자가에서의 고독한 죽음의 이미지가 밀그림으로 정교하게 그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알리씨는 죽기 이틀 전에, 마치 그리스도가 어둠 속에서 “목말라하며”⁶⁷⁾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⁶⁸⁾라고 처절하게 부르짖듯이,

주여! 힘껏 당신께 외칩니다. 저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당신께 외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갈증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바로 이 행복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⁶⁹⁾

라고 절망적으로 절규한다. 여기까지 보면 알리씨에게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교묘하게 교직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⁷⁰⁾라는 말씀으

65) Ibid., p. 155.

66) 마 16:24.

67) 요 19:28.

68) 마 27:46.

69) Gide, op. cit., p. 177.

70) 눅 23:46.

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의 절정을 보여 주고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고 있음에 반해,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건 알리씨는 “주여! 당신을 모독함이 없이 종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⁷¹⁾라는 말과 최후의 자포자기와 두려움이 뒤섞인 불신앙을 극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성경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희생을 통해 죄인을 구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절묘하게 만나서 완성된 구속사의 절정이지만, 알리씨의 자수정 십자가는 제롬에의 욕망과 자기희생의 의지가 혼합된 이중성을 지닌 것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파괴를 초래한 무익한 자기희생의 상징적인 소도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III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좁은문」과 성경의 간텍스트성의 다양한 양상을 다시 한 번 정돈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먼저, 작품 첫머리부터 시작한 성경의 인용은 소설의 후반부로 갈수록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며 두 주인공에게 닥칠 사건을 예고하기도 하고 알리씨의 영적인 모험의 이정표 역할도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알리씨는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구의 현란한 인용을 통해 자기 기만을 정당화시키고, 원초적인 욕망과 피해의식화된 고정관념을 은폐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구가 인용하는 사람의 욕망이나 무의식적인 의도의 표현 수단이 됨으로써 그 원래의 의미는 변질되고 훼손되어 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두 텍스트간의 상호적인 교차작용을 통해 인용문의 원의미와 변형된 의미가 소설 속에서 길항하는 데서 오는 긴장감과 새로운 의미 생성의 열린 가능성을 맞볼 수 있다.

그 다음, 보다 은밀하게 소설 속에 교직된 성경 주제와 이미지의 암시는

71) Gide, op. cit., p. 178.

소설의 중요한 무대와 소품,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 그리고 이야기의 진행 과정 속에 내재화되고 밀그림으로 깔려 형태적으로 재창조됨으로써 소설로서의 예술적인 완성도에 크게 기여를 하여 문학적인 감동의 한 원천이 된다. 가령 마치 숨은 그림찾기를 하듯이, 우리는 ‘좁은문’ 속에서 성경의 좁은문과 알리씨의 방문, 정원의 작은 문, 알리씨의 닫힌 마음문의 중첩된 이미지를 찾아낼 수 있고, 알리씨에게서 우리는 에덴동산의 하와와 하나님의 이미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며 절대고독 속에서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상이 서로 겹쳐져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모든 성경적인 요소들이 역설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산출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성경적 요소들이 지드의 가장 탁월한 작품의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예술적으로 지드가 성경과 기독교에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는 청교도적인 엄격한 가풍에 대한 반발심과 더불어 아마도 애초의 종교적 입문에서의 과정이었던, 혼자서 그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해석하며 몰두했던 그의 성경읽기의 방법에 있었던 것 같다.⁷²⁾ 성경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이라는 그 당시의 프랑스 개신교의 일반적인 풍토 속에서 성장한 지드는 체계적인 신학이나 정통적인 성경비평에 무지했으며,⁷³⁾ 뮐러의 지적에 의하면⁷⁴⁾ 심지어 그는 단 한 권의 주석서도 읽지 않고, 성경을 소설이나 시를 읽고 판단하듯 자신의 취향이나 판단력으로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마치 알리씨처럼 지드 자신도 성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선별적으로 인용하거나, 중요구절과 핵심적인 내용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등의 기본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를테면 성경에는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육체적인 사랑의 결합과 조화를 축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망을 신성한 사랑과 양립

72) Perry, op. cit., p. 23.

73) Savage, op. cit., p. 272.

74) Moeller, *Littérature du XXe siècle et christianisme I*(Casterman, 1967), p. 186.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⁷⁵⁾ 소지가 있는 성구만을 골라 성경을 감각적인 금욕 교리서로 왜곡하기도 하며, 십자가의 수난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필연적인 대속의 죽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도하차시킨 불행한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이다.⁷⁶⁾ 따라서 이 소설뿐 아니라 지드의 어떤 작품에서도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무력하게 죽는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측면만 부각시키고 있을 뿐,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는 하나님인 그리스도’의 모습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구원 문제도 바로 이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해결된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드는 인간 스스로의 각고의 노력에 의한 자아완성에 의해 신성에 도달한다고 믿는다. 이런 관점에서 지드가 선택한 구원의 길은, 마치 알리샤가 일기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기 완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⁷⁷⁾로 삼아 고독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듯이, 글쓰기 또는 완벽한 예술작품의 창조에 있다고 본다. 요컨대 지드는 성경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에 단순히 성경의 모랄적인 측면과 예술가로서 성경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에만 경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I. Textes

Gide, A., *La Porte étroite, Mercure de France*(Collection Folio, 1991).

La Sainte Bible(Nouvelle édition de Genève, 1979), Société Biblique de

75) 실제로 지드는 성욕을 오직 남자에게만 있는 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아내 마들렌느를 처녀로 늙게 했다고 한다. 이른바 ‘백색결혼’인데, 마들렌느같이 고상하고 순결한 여인은 육체적인 욕망이 없으리라고 믿은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욕의 충족은 동성애와 혼외정사에 의지한다.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영육분리의 이원론적 사상이 그 자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결과라고 본다.

76) Savage, op. cit., p. 179.

77) Gide, op. cit., p. 162.

Genève(1990).

II. Ouvrages consultés

- Bertalot, E. U., *André Gide et l'attente de Dieu*(Minard, 1967).
Brée, G., *André Gide. L'Insaissable protégée*(Les Belles Lettres, 1970).
Cancalon, E. D., *Techniques et personnages dans les récits d'André Gide*(Minard, 1970).
Gerard, A.-M., *Dictionnaire de la Bible*(Robert Laffont, 1989).
Greimas et Courtés, *Sémiotique. Dictionnaire raisonné de la théorie du langage*(Hachette, 1979).
Martin, C., *Gide*(Seuil, 1986) - (Ecrivains de toujours).
Moeller, Ch., *Littérature du XXe siècle et christianisme I*(Casterman, 1967).
Perry, K., *The religious symbolism of André Gide*(Mouton, 1969).
Raimond, M., *Le Signe des Temps*(SEDES, 1976).
Savage, C. H., *André Gide. L'évolution de sa pensée religieuse*(Nizet, 1962).
Trahard, P., *La Porte étroite d'André Gide*(Edition de la Pensée moderne, 1968).

III. Articles

- Masson, P., "La porte ouverte ou voyages et voyageurs dans La Porte étroite", *Bulletin des Amis d'André Gide*, VIII, 45(Janvier 1980, pp. 5-51).
- , "Production - reproduction: L'inertextualité comme principe créateur dans l'oeuvre d'André Gide", *Le Plaisir de l'intertexte*(Peter Lang, 1986, pp. 209-226).
- Sonnenfeld, A., "Baudelaire et Gide: La Porte étroite", *La Table Ronde*, 232(Mai 1967), pp. 79-90.
- Todorov, T., "Comment lire", *Poétique de la prose*(Seuil, 1971), pp.

241~253.

Wégimont, M. A., "Trois oasis dans La Porte étroite de Gide", *Bulletin des Amis d'André Gide*, XIII, 67(Juillet 1985), pp. 13~30.



■ 동성식 ■

1956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및 동대학원에서 불어불문학 석사 학위 취득, 박사 과정 수료, 파리 3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현 창원대학교 불문학과 교수, 「젊은이여 인생을 이야기하자」(앙드레 모르와) 역서와 불문학에 관한 논문 다수. 창원대학교 교수선교회 총무로 활동.